

순천만국가정원서 심·힐링 산책 즐긴다

시, 13~14일 르무통 산책회...음악·정원 등 만끽 5일까지 1400명 선착순 모집...“건강한 심 경험”

순천만국가정원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순천시 힐링 산책 행사를 갖는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걷기 편한 신발 브랜드 르무통과 함께 오는 13~14일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걷기 행사 ‘르무통 산책회 in 순천’을 개최한다.

지난해 9월 큰 호응 속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르무통 산책회’는 순천에서 두 번째로 마련되는 행사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의 상그러운 초여름 풍경을 배경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걷는 즐거움’과 ‘편

안한 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산책회는 단순히 걷는 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자연과 음악, 그리고 여유로운 감성이 함께하는 경험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녹음이 깊어진 국가정원의 세계정원과 테마정원, 물길과 숲길이 어우러진 산책 코스를 따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끼고, 정원이 주는 치유와 심의 가치를 몸소 경험하게 되는 초여름 정원의 풍경을 만끽한다. 걷기의 끝에서는 또 하나의 여운이 기다

린다. 도착지인 위케이션센터에서는 ‘가든 음악회’가 열려 참가자들에게 정원의 낭만 속 특별한 휴식의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바쁜 일상 속 잠시 걸음을 늦추고, 음악과 바람,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정원의 시간을 오롯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산책 코스는 총 6km 구간으로 일반 성인 기준 약 1시간30분 내외가 소요되며 대부분 평지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코스 곳곳에서는 형형색색의 꽃과 짙어진 녹음이 어우러진 정원의 풍경이 펼쳐져, 참가자들은 공간마다 서로 다른 계절의 감성을 느끼며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 참가 인원은 양일간 하루 700명씩 총 1400명 규모로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5일까지 르무통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입장권이 포함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여름철

활용도가 높은 메쉬 짐싸개와 굿즈, 간식 패키지가 제공된다. 안주자에게는 산책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완보 기념 메달과 안보증도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걷기는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이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가장 편안한 걸음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건강한 심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나주,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로 주민 편의 높인다

시, 남평읍·노안면 3937개 무상 교체...도시경관 개선 기대

나주시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환경 조성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남평읍과 노안면 지역의 노후 건물번호판 3937개를 무상 교체했다. 이번 정비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나 훼손되거나 색이 바랜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시민성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응급상황과 각종 생활 서비스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주민 편의의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가운데 도로명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지만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노후 건물번호판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무상 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건물번호판 정비는 주소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문객과 택배·배달 기사, 응급 구조기관 등이 목적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동 지역 1854개소를 대상으로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 남평읍과 노안면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을 대상

으로 연차별 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정종도 시 시민행정보통국장은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는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목포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확대

65세 이상·전체 의료기관·노인부부 세대 대상

목포시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의료돌봄서비스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고향 부모님 병원동행 안심케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병원을 이용할 때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가 집에서부터 병원 접수와 진료, 귀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병원 이동 차량까지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다. 시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75세 이상이던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 범위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관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노인부부 세대까지 포함하도록 넓혔다. 서비스 신청은 이용 전월 20일부터 목포시 노인장애인보호센터(061-270-8279)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다만 재가서비스와 바우처택시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보호자 부재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고 지역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함평군은 최근 학교농업단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입주기업 관계자와 근로자,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함평군청

함평군,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준공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농공단지 활성화 기대

함평군이 학교농공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학교농업단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입주기업 관계자와 근로자, 기관·단체장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기념패와 인제양성기금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농공단지협의회는 복합문화센터 준공을 맞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기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섰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총사업비 75억31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39.39㎡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에는 식당, 커뮤니티실, 북카페, 체육실, 세탁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과 함께 기숙사 20실, 최대 3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생활공간이 마련됐다. 군은 센터가 근로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근로자 복지 향상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화순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 성과 입증

90% 자격증 취득...재능기부로 평생학습 선순환도

화순군이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의 성과가 입증됐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경력 단절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거나 전문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리수납전문가 1급, 노인건강운동지도사 1급 등 2개 과정이 운영됐으며, 총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약 90%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정이 높은 자격 취득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은 교육 성과를 개인의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으로 이어가며 평생학습의 선순환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서비스와 건강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배움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평생학습의 가치를 함께 확산하고 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정책총괄과장은 “평생학습은 군민 개인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군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민 기자 vip3355@gwangnam.co.kr

해남, 마약류 노출 ‘익명 검사’ 운영

보건소, 20분 확인...대마·필로폰 등 6종 대상

해남군이 마약류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익명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보건소는 최근 SNS를 통한 마약류 접근, 불법 마약류 밀반입, 무작위 배포 등 마약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6종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타인이 건넨 물질을 섭취·흡입한 뒤 불안감을 느끼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보건소 의약관리팀 1층 방사선실을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간단한 사전 설문지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임상병리실에서 소변검사를 진행한다. 검사에는

약 20분이 소요된다. 검사 항목은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 등 아편류,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6종이다. 간이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류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수검자 보관증 외 별도의 확인서나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검사 과정 전 물질을 섭취·흡입한 뒤 불안감을 느끼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보건소 의약관리팀 1층 방사선실을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해남군 보건소 의약관리팀(061-531-3749)으로 하면 된다. 해남=박기성 기자 city@gjdream.com

곡성, 지역 상권 부흥·미식관광 상품화 추진

‘쓱라떼’ 등 15명 정예 상인 배출...특화 메뉴 개발 기대

곡성군은 최근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미식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추진한 ‘상인대학 및 특화메뉴 개발과정’ 합동 수료식과 품평회 ‘곡성으로의 초대’를 개최했다. 곡성군이 주최하고 곡성 로컬브랜드 상권활성화 추진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상인들이 수개월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준비한 성과를 공유하고, 곡성 상권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약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상인대학은 곡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총 10회차에 걸쳐 운영됐으며,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최신 경영 트렌드 분석과 고객 응대, 마케팅 전략, 현장 중심 실습 등을 포함한 실용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서는 생업을 병행하면서도 배움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이어온 총 15명의 상인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허미영(허미카페)·노계숙(가랑드)·전철성(삼성이용원) 대표는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근상을 받으며 타 상인들의 귀감이 됐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품평회에서는 교육



곡성군은 최근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미식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추진한 ‘상인대학 및 특화메뉴 개발과정’ 합동 수료식과 품평회 ‘곡성으로의 초대’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과정을 통해 개발된 곡성만의 특화 메뉴가 처음으로 소개됐다. 지역 식재료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메뉴들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수육·보쌈김치’, ‘쓱라떼’ 등 곡성의 정체성을 담은 먹거리 콘텐츠가 향후 지

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이 보여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과정이 곡성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